

목표달리다

익산자원봉사센터-마한로타리클럽  
지역사회 문제해결 협약 체결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 와 익산마한로타리클럽이 익산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힘쓰고,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신속한 복구 등을 위해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 짓기, 장학금 전달, 사랑 나눔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성 활동을 함께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상호협력 추진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기타 협력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익산마한로타리클럽 임성규 회장은 "MOU협약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익산시자원봉사센터와 익산마한로타리클럽이 상호협력을 통해 자원봉사가 활성화 되고, 다양한 업무교류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등서화합·자연보호 영호남 세미나

전북도와 경남도 자연보호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사)자연보호연맹 군산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9회 등서화합과 자연보호 영호남 세미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리버힐군산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경상남도협의회 및 전라북도협의회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자연보호연맹 중앙회 임원 및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과 군산시 간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영·호남 자연보호 세미나는 1998년부터 매년 영·호남에서 순회 실시되고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자연보호 단체가 앞장서자라는 구호 아래 영호남 상호 교류를 통해 국토의 자연보호와 환경보존 방향을 모색하고 등서 화합 계기를 마련코자 개최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영어축제 22일 개최

제9회 군산영어축제가 오는 22일 군산 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1,000여명의 학생과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올해 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미래를 향해 뛰라(English Opens the World, Run for Tomorrow!)'는 주제로 개최된다.

학생들은 영어를 사용하는 6개 국가 및 할로윈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 부스와 초등학생 Survival Quiz대회, 영어 노래 부르기 대회, 중학생 영어말하기 대회 등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영어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특히 초등학생 대상 영어노래 부르기 대회는 10명 내외로 구성된 20여팀이 참여해 영어실력과 끼를 겨루게 된다.

다구나 이번 군산영어축제는 외부 문화체험 부스뿐만 아니라 영어로 진행되는 체험중심의 실내수업을 마련함으로써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익산서 중앙지구대, 현장조치로 생활고 비판 자살기도자 구조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에서는, 지난 6일 조울증 등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평소 생활고 등으로 신병을 비판하여 농약을 이용하여 자살을 시도하려는 기도자를 구조했다.

지난 6일 오후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묘지에 앉아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중앙지구대 순찰차 3대가 현장으로 긴급출동 하였고 신고 장소 묘지주변을 담당 수색구역을 정하여 수색 중 반대편으로 이동하였다는 첩보를 입수 곧바로 이동하여 반대편 이카사야 숲을 수색했다. 세밀하게 수색을 진행하던 중 숲 속 깊숙한 곳 바위에 앉아 농약을 옆에두고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자살기도자를 발견하고 설득시켜 관할 파출소에 연락하여 보니 지속적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관리대상인자로 보호자 연락처 확인 후 안전하게 인계했다.

출동한 경위 김문임은 "앞으로 주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해 열심히 근무 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항재해취약지구 외곽시설정비공사 발주 해일 방지시설 공사

상인들 반발에 2년 넘도록 표류

군산시 비응항에 태풍 등 월파 피해 방지를 위해 발주된 폭풍해일방지 사업이 상인들과 입장차를 보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장기표류하고 있다. 지난 5월 영남지역을 강타한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부산비린시티 일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해당 지자체에서 방파제 높임 공사를 진행하려했으나 주민 반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에 인접한 군산 비응항의 경우도 부산비린시티와 같이 태풍 등 폭풍해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리환경에 처해있다. 실제 지난 2012년 12월 계절풍의 영향으로 비응항은 방파제를 넘는 높은 파도에 주변 상가의 유리가 파손되고 보도블럭이 떨어져 나가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월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군산해수청은 2013년 85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산항재해취약지구 외곽시설정비공사'를 발주, 비응항 서쪽 호안에 설치된 높이 1미터의 방파제호안을 2.7미터로 더 높이는 폭풍해일방지 시설을 발주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착공조차 못하고 2년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비응항 상인들은 월파방지를 위해 해안도로 방파제호안을 3미터 가량 높일 경우 해안 조망권을 상실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 상인들은 방파제호안 높이를 기존 높이로 유지한 채 비응도 앞 북·서측 해상에 신규 방파제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면 높은 파도를 파쇄하는 효과로 인해 비응항 호안으로 월파가 발생하지 않고 조망권도 확보해 관광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 군산해수청은 신규 방파제 건설에는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3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으나 이렇다할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비응항 주민은 "현재 비응항 북·서측에 설치된 방파제호안의 높이는 1미터로 북서쪽에 의한 높은 파도 또는 태풍 '차바'와 같은 강력한 태풍이 서해안으로 접근할 경우 비응항 일대가 또 다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안은 상인들과 협의점을 찾지 못해 시공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며 "실제변경을 통해 후면상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가와 방파제호안 사이에 방파벽(높이 80cm)을 설치해 월파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10월 중 착공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그린에너지 전력 공급

익산시-한국수력원자력 연료전지사업 공동개발 위한 MOU체결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끈질긴 노력 끝에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부지에 친환경·고효율 발전시설인 20MW급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 연료전지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기그린에너지, 부산그린에너지, 노을그린에너지에 이어 네 번째로 추진하는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이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조석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은 지난 7일 오후 4시 익산시청 홍보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연료전지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부지에 20MW급 연료전지 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약 1,100억 원 정도의 투자가 예상된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연료전지사업 건설 및 운영 등 사업 개발을 주도한다. 올해 안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2019년에는 연료전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료전지 사업이 완료되면 약 3000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0MWh의 전기가 생산되며, 전기생산과 더불어 발생하는 열(스팀) 약 10만톤은 전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에 제공하여 입주업체는 연간 약 10~15%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연료전지 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에 커다란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예정기업 A사의 경우 연간 2~3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MW 연료전지 사업 추진 시 연간 약 1만 4,74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30년생 소나무 149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날 "이번 협약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응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체의 연료비가 절감되어 투자유치 활성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연료전지사업 공동 추진을 발판 삼아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도시의 신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에 여성용품 지원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김진호 소장)이 세이브더칠드런과 PK&G로부터 여성용품을 후원 받아 100여명의 위기(가능)청소년에게 120만원 상당의 여성용품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필수용품을 구매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 위한 것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진호 소장은 "비록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지만,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도 애정과 감동이 필요하기에 마음이 어린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고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소년들이 동정이 아닌 공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으로 군산지역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 전

문적 상담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수송동 동정 홍보용 소식지  
오피고을 발간 주민들 '호응'

군산시 수송동이 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동정 홍보용 소식지 '오피고을'을 발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5일 첫 제작된 수송동 소식지 '오피고을'은 매달 25일 2000매씩 발간되며, 관내 26개 아파트 게시판 및 롯데마트, 금용기관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된다.

이 소식지는 관내 동정 소식, 주민들이 알아야 할 시책사항, 문화행사 및 생활정보 등을 수록해 다양한 정보공유 장으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호 소식지에는 민방위대원 교육,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 각계각층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제도 및 정보가 담겨있어 세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소식,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사진과 함께 실어 주민들이 동에서 추진중인 시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김종진 수송동장은 "소식지가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담당업무별 연락처도 상세히 수록해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나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턱을 낮추고 소통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의회, 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군산시의회 박정희 의장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들은 지난 7일 국가산단지공단 전북본부 회의실에서 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20여명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책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 산단단지 내 신호·과속단속 CCTV 증설, 생산활동과 관련 과적 단속 등 규제 완화, 오식도 생활공원 주변 조망시설 및 테니스코트 조명탑 설치, 산업단지 관리 일원화 체계 운영, 겨울철 산업단지 도로 제설작업 대책 마련 등 그동안 기업들을 운영하며 느꼈던 애로사항이 건의 됐으며 시의회는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와 국가산단경영

자협의회는 긴밀한 협조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김중환 회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내 업체 이용 기업불편사항 즉시 해결 등 시의회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희 의장은 "국내외 경제 악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힘든 현실을 공감한다"며 "기업이 마음 놓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여 일자리 창출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배우고 나누며 즐기는' 익산평생학습축제 성료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중앙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제9회 익산평생학습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배우고 나누며 즐기는' 평생학습, 보석처럼 빛나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성인문해교육 테마관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작품전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 성인문해한마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소통의 열쇠, 문해 그 짜릿함!' 부제에 맞게 성인문해교실 익산행복학교의 60여명 문해학습자와 교사가 울동으로 개막식을 열었고, 성인문해교육 주제관 문해시화전, 문해골든벨, 보물찾기 등 문해교육 관련 프로그램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평생교육으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시간이 됐다.

대학교, 여성회관, 복지관 학습동아리 지역아동센터 등 100여개 관내 평생학습 유관기관?단체가 참가해 왕궁리5층식당 피클 조리, 국악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원석팔찌, 핸드드립 커피, 마술 3D프린터 등 60개가 넘는 평생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됐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평생학습동아리 발표회, 여성회관 및 지역아동센터 발표회에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참가하여 그동안 같고 뒤은 숨겨져 미처 알지 못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드림스타트·여약사회  
'종합영양제 및 구충제 지원' 전달식

군산시 드림스타트와 군산시여약사회(회장 한정미)는 지난 6일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을 위한 '종합영양제 및 구충제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군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후원받은 종합영양제 100개는 저체중 저신장 등 다양한 음식섭취가 부족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전달하고, 구충제 1000명분은 드림스타트 대상 전체 구충제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여약사회는 가정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비 안전구급약 100개와 성장 부진 아동 100명에

게 종합영양제를 지원해 표준체중에 근접한 성장을 위해 도움을 준 바 있다.

한정미 군산시 여약사회장은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된 후원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대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형철 주민복지국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심과 사랑이 아동의 성장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